

## 新〈전쟁에 관하여〉

수필가 최규자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입을 중심으로 하여 19세기 초기의 러시아 상류사회의 전제화(專制化)와 그에 저항하는 청년 귀족의 반민과 각성을 테마로 하였다. 이것이 1869년 간행된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전쟁(戰爭)과 평화(和平)』인데, 나폴레옹 전쟁(1812년) 당시의 러시아 사회를 그린 역사소설로 일종의 서사시(敘詩)적 작품이다.

전쟁(戰爭)은 두나라 또는 두나라 이상의 나라가 부력을 사용하여 서로 적대행위를 취하는 교전상태를 말한다. 또 국내에서 서로 다른 세력 간에 벌어지는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선전포고가 전쟁상태로 들어갔음을 알리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선전포고가 없는 전쟁도 많다.

일찍이 전쟁의 형식으로서 제국주의 전쟁, 민족주의 전쟁, 종교전쟁 등으로 불린 전쟁들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혁명전쟁, 독립전쟁, 민족해방전쟁, 범죄와의 전쟁, 비리와의 전쟁, 다약과의 전쟁 등의 호칭도 나타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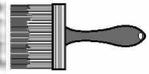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 후, 핵무기의 출현으로 강대국간의 전쟁은 일단 억제되었으나, 여기저기에서 국지전쟁은 빈발했다. 그리고 선전포고와 중전협정도 없는 소위 처유과 같이 없는 점진적 전쟁이 많아졌으며, 따라서 유엔헌장은 침략전쟁을 비합법화하였다.

프로이센의 육군소장 클라우제비츠가 쓴 저서가 유명한 『전쟁론(戰爭論)』인데, 원제는 『Vom Kriege』로 직역하면 “전쟁에 관하여” 정도쯤 되겠다. 이 귀중한 책은 1832년에 간행되었는데 나폴레옹의 여러 전쟁을 분석하고, <전쟁은 정치의 연장> 등 전략론을 철학적 수준으로까지 드높인 전쟁이론의 고전(古典)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쟁범죄(戰爭犯罪)는 종래에는 전쟁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관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에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가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독가스과 같은 금지무기의 사용, 부상병이나 포로의 학대 같은 것이 있다. 종래에는 각국이 전시 중에 체포한 범죄인단을 처벌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법정에 의해서도 처벌되었다. 예컨대, 뉘른베르크 국제재판이나 극동군사재판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야기가 났으니 말인데,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의 일종이 전쟁보험이다. 이러한 보험은 전쟁으로 받는 각종 손해들 보전(補填)한다. 1982년 영국에서 채용된 <전쟁위험담보약관>에 의하면,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것은 전쟁 내란 혁명 반란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교전국에 의해서 또는 교전국에 대해서



행해진 적대행위 또는 유기(遺棄)된 지뢰와 폭탄 등에 의한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발된 전쟁신경증(戰爭神經症)이란 전쟁공포로 인한 히스테리를 지칭한다. 전장(戰場)에서의 공포, 전상(戰傷), 전병(戰病)이 주된 원인인데, 전쟁으로부터의 도피욕망, 혹은 연금(年金)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망같은 것이 소인(素因)이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침략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방법으로서 침략전쟁에 관련된 책임을 국제법상으로 돌게 되었다. 그리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전쟁지도자와 전투원의 전쟁계획이나 전쟁개시와 수행의 책임 곧 전쟁범죄에 한정시키지 않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비전투원의 소극적인 전쟁협력에 이르기까지 그 도덕적이고도 사상적 책임을 추궁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있었다. 바로 전쟁책임론은 이러한 논의를 가리킨다. 그러다가 근세기에 들어와서 전쟁권한법(戰爭權限法 War Powers Resolution)은 미국에서,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제약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원래 미국의 헌법에 의하면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회의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의 총지휘관으로서의 권한에 의해 미국군대가 동원되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는 경우가 과거에 적지 않았다. 그래서 1973년 11월에 제정된 것이 전쟁권한법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60일 이상 미군을 투입하는 것을 금하고, 그것도 국가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한한다고 못박았다.

어디 이것뿐이라, 전쟁규모의 확대와 총력전화(總

力戰化)를 배경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에 의해서, 생산구조가 재편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제를 우리는 흔히 전쟁경제(戰爭經濟)라고 부른다.

이러한 전쟁경제는 몇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중 첫째가 민수산업의 전환에 의한 군수산업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둘째로 경계면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동시에 국가독점자본주의화(化)가 촉진된다

셋째로 반강제적으로 인위적인 초과이윤이 증대되고 독점이 진전된다.

넷째로 자연히 대중의 궁핍화가 뒤따르고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전쟁화(戰爭畵)는 전투자체 또는 전장의 모습이나 정경을 그린 그림이다. 역사화, 전장의 풍속화, 이야기기를 도해적으로 표현한 것 등으로 나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꼭 그려졌으나 폼페이에서 발굴한 I알렉산더대왕(大王)의 전투 J, 나폴레옹의 전쟁을 다룬 그림 등이 그중에서도 특히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쟁화가 거의 불모상태에 있으나, 굳이 꼭 찾는다면 임진왜란을 주제로 한 I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 J 등을 들 수 있고, 김유신을 지문덕, 강감찬 등 고대의 명장의 전투와 임진왜란, 6·25사변, 월남전을 다룬 최근의 민족기록화를 들 수 있겠다. 